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제23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일시	2019. 11. 20.(수) 15:00	장소	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
참석위원	이전오, 전병우, 서수정, 전승호, 김중환, 심왕섭 / 조준모, 김영호, 김예지, 이동희, 김원갑 평의원 위임장 제출 (이상 총 11명) ※ 신완선 기획조정처장, 박경민 과장, 이지원 직원 (전략기획.홍보팀), 최정훈 팀장, 정호준 직원 (예산기획팀) 배석		
불참위원			

1. 개 회

- 이전오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 위임장을 제출한 조준모, 김영호, 김예지, 이동희, 김원갑 평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평의원이 참석함으로써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 전차 회의록은 불임의 회의록을 목독하고,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다.
- 전병우 평의원이 발언 중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용한 예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다.
- 의장이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수정을 승인하다.

2.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의장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신완선 기획조정처장(이하 기초처장)이 불임의 자료와 같이 안건을 설명하다.
- 서수정 평의원이 캠퍼스별 입학정원 분리기재에 대하여 질의하다.
- 기초처장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수원캠퍼스 학생을 100명 이상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교육부의 지침이며,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다.
- 전병우 평의원이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관리에 대하여 묻다.
- 기초처장이 일반대학원인 경우 캠퍼스별 총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은 교육부 허가시 해당 정원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 대학원별 정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다.
- 대평의장이 융합전공은 학생이 입학하는 학과와 졸업하는 학과가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초처장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며, 학생이 융합전공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합전공이 졸업학과가 되지만, 융합전공 참여학과 중 하나로 입학하는 경우, 졸업학과가 해당학과 또는 해당학과(oo융합전공)이 가능함을 설명하다.
- 서수정 평의원이 융합전공의 경우에도 그 전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학과 같은 중심체계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하다.
- 대평의장이 융합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위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하다.

- 서수정 평의원이 인사캠과 자과캠 학문간의 융합을 위하여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융합 모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다.
- 전병우 평의원이 융합전공이 현재 운영 중인 학과간 협동과정과 설립 취지가 비슷해 보인다고 하며, 학과·과정·전공에 대한 정확한 명칭 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다. 또한 융합전공에 대한 근거조항이 「과정별 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에 해당하는 학칙 6조에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융합전공이 별표2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임을 설명하다.
- 의장이 평의원들에게 질의사항 또는 의견이 없는지를 재차 확인한 후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3.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자문

- 의장이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최정훈 예산기획팀장(이하 예산팀장)이 붙임의 자료와 같이 안건을 설명하다.
- 전병우 평의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예산규모 변동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한 것임을 언급하고 등록금 수입을 포함한 수입변동과 인건비 등 지출예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
- 대평의장이 당초예산 대비 학부 등록금 수입 증감 원인과 규모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록금 수입 추정시 직전 3개년도 평균 재학생 등록인원과 기타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군휴학 감소로 인한 재학생 수 증가로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추정오차는 2%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대평의장이 삼성장학금 지출이 감소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입학성적에 근거한 선발기준 변동에 따라 매년 선발인원에 차이가 발생함을 설명하다.
- 서수정 평의원이 학교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투자방향은 어느 부서에서 수립하며, 올해 계획은 어떠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의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은 전략기획·홍보팀에서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은 예산기획팀과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거친다고 언급하다. 또한, 예산기획팀은 계약학과 활성화, 수익사업 확충, 편입생 확대, 기부금 확대 등 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기초처장이 우리나라 대학은 외부요인에 의하여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기업형 경영체계 구축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이다. 대학이 발전하려면 큰 청사진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등록금과 기부금 증가 등 수입 확대의 한계로 당분간 적자예산 편성을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향후 이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VISION2030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하다.

- 김중환 평의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기부금수입의 올해 예상실적과 전년도 결산대비 증감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당초예산은 전년도 기부금 실적 대비 증액편성 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실적수준으로 조정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기부금 실적도 낙관할 수 없음을 설명하다.
- 김중환 평의원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총장 취임 1년차 때는 기부금 수입이 줄어들고 그 이후에 늘어나는 것이 추세인 것이 맞지만 기부금 모금 활동에 대학 전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다.
- 예산팀장이 경영진과 유관부서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부금 모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대평의장이 전년도 대비 기부금액의 절대금액 감소는 문제로 보여 진다고 언급하다.
- 기초처장이 전년도는 기부금 모금이 특별히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여러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현재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 전병우 평의원이 대학이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학생을 많이 뽑을 수 있어야 하고, 외국인 학생 및 계약학과의 확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다. 우수학생 유치에 연구/교육이 우수한 대학원을 만들어야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연구력 향상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다. 또한 단과대학에서 계약학과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학과 교수들의 업무가 증대되는 것인 만큼 학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서수정 평의원이 공감을 표하며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동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다. 예를 들어 대형연구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면 다각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발언하다.
- 기초처장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학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향후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다.
-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의장이 17:3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2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이전오	 (인)	조준모	<위임>	서수정	 (인)
전병우	 (인)	김영호	<위임>		
전승호	 (인)	김중환	 (인)		
김예지	<위임>	이동희	<위임>		
김원갑	<위임>	심왕섭	 (인)		